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 친교후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 이번 목요일(8월9일) 저녁 8시 교척개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CSO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 오늘 오후 5시. 396 Broad Ave, Leonia, NJ 07605
- 학생부 캠핑 트립에 초대합니다.
  - 8월10일(금)-11일(토). Kittatiny Campground, 3854 NY-97, Barryville, NY 12719
- 새가족 환영
  - 김희철/권혜순 집사 905 Half Moon Bay Dr. Croton on Hudson, NY 10520.  
(718) 551-2233 / (516) 320-1834
  - 박홍매 자매 10 Sunset Dr. Thornwood, NY 10594 (914) 356-2310

##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8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성창현 집사 (시편 130)

이번 주 친교: 한주루 권사, 윤정호 집사

다음 주 친교: 이현주 집사, 이영미 집사

제18권 31호

2018년 8월 5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Bryan Pae 형제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9:1-19, 26-28** -----인도자  
 설교(Sermon)----- “**3 People, 3 Lessons**” ----- Edwin Kim 전도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90장 (통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Psalm) 51:1-12 ----- 서영수 집사  
 찬양(Choir) ----- 만유의 주재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갈(Galatians) 1:11-24; 2:1-2, 6-9**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하나님의 뜻 가운데**”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497장 (통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Soli Deo Gloria  
(행 15:1-21)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문제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과 선지자들을 통한 약속을 살피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예수 믿으면 됐지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면 유대인 신자들로서는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환영은 했지만 할례를 포함한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베드로를 통해,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할례가 없이도 믿음만으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견과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회의는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아무도 혼자서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깨달았다면 그것은 교회에 증거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자기만의 영적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견과 논쟁을 통해 우리 뜻보다 크신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 자기 주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순복할 때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이 사람들을 잠잠케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믿음만을 보시고 깨끗케 하신 은혜를 전하자 (사실 그 일 가운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분명히 드러났고, 이미 온 교회에 그 일이 밝히 보고된 바 있습니다) 논쟁을 그쳤습니다. 특별한 설득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무슨 특정한 교파의 교리도 아니고, 교회사 가운데 주도권을 잡은 어떤 분파의 주장도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영광을 나눠주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입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는 일 외에는 더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합당하게 알고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공로도 우리의 구원받을 가능성을 한치도 높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야 좋은 일이지만, 그 선함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야, 율법을 지킨 공로와 언약 백성이라는 자랑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전혀 새로운 한 새 사람을 만들어(엡 2:15)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은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감격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온 세상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염원합니다.

야고보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죄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때 모든 민족들을 기업으로 주시리라는 약속의 참 뜻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종교적 회복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기업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가운데, 율법으로 이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특정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말씀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내 주장을 굴복시킨 겁니다. 오직 성경이란 것도 무슨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을 중시하는 어떤 분파의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해석이나 주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의 의견을 통일해 결정한 회의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된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날에 도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경진합시다.